

땅도 집도 모두 안 팔린다 제주 경매지표 '역대 최악'

7월 경매 물건 927건 중 낙찰률 15.1%로 역대 최저 기록
낙찰가율은 46.1%로 전국 평균 60.1% 밑돌며 가장 낮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매시장 지표도 잇따라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7월 전체용도 경매 낙찰률이 10%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토지도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6월 경·공매 기업 지지옥션의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9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902건)에 이어 두 달 연속 900건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0월(1014건) 이후 가장 많은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반면 낙찰률은 15.1%(140건)에 그쳐 종전 최저였던 지난해 10월(16.6%)보다 낮았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최저 낙찰률이다. 갑갑가 대비 낙찰가액 비율인 낙찰

가율은 46.1%로 전국 평균(60.1%)을 크게 밑돌며 16개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다.

주거시설 경매는 214건이 진행돼 42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19.6%, 낙찰가율 53.5%를 기록했다. 주거시설 낙찰률이 20%를 밑돈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으며, 낙찰가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낙찰률 27.7%, 낙찰가율 71.7%다.

주거시설 가운데 아파트는 14건이 경매에 부쳐져 4건이 평균 80.4%의 낙찰가율로 새 주인을 찾았다.

업무·상업시설은 244건이 경매에 부쳐져 30건이 주인을 찾아 낙찰률 12.3%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낙찰가율은 56.1%로 집계됐다.

토지 경매 진행건수는 463건으로 전체 경매 물건의 49.9%를 차지했

다. 이 가운데 67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14.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13.9%) 이후 역대 두 번째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33.8%로 종전 최저였던 올해 1월(36.0%)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경매 물건의 절반을 토지가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 소유주가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농지 등을 매입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농지법 강화 이후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각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제주지역 토지 경매 물건의 약 50~60%는 전·과수원 등 농지"라며 "경기침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오는 토지 물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2회 한라일보배 태권도 품새대회가 8일 제주북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1회 대회 모습.

한라일보 DB

제주지역 태권 품새 정상 가린다

제2회 한라일보배 태권도 품새대회 8일 개최
1000여명 참가... 단체도 29개팀→39개팀으로
태권체조 부문 신설... 버추얼태권도 시범경기

침체된 제주지역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제2회 한라일보배 전도 태권도 품새대회가 8일 제주북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제주 대표신문' (주)한라일보사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경쟁부문이 확대되면서 참가단체가 늘었고 신설되는 태권체조 부문 첫 우승팀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참가 대상은 기존 초·중·고부에서 일반부까지 확대됐고 경쟁부문에 개인전과 3인조 단체에서 태권체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참가자도 공인품새 개인전 845명, 공인품새 3인조 단체 90명, 그리고 신설된 태권체조 부

문 5개 팀 65명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한판승부를 벌이면서 전체 참가인원은 1000명대를 돌파했다.

특히 참가단체도 지난해 29개 팀에서 올해는 39개 팀으로 10개 팀이 늘었다.

경기는 초·중·고·일반부 개인전과 3인조 단체전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전 초등부는 학년별로 나눠 치러진다. 단체전 초등부도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중·고등부로 구분해 우승자를 가린다.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장 등이 주어지며 개인전 1위를 가장 많이 기록한 팀을 대상으로 종합시상도 이루어진다.

한편 이날 대회 식전공연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과 함께 대한버추얼스포츠협회 후원으로 버추얼태권도 이벤트 경기도 열린다.

2026 아이치·나코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버추얼 태권도는 태권도 기술과 최첨단 가상현실(VR) 기술을 결합한 종목이다.

선수들이 VR헤드셋과 상체, 무릎, 종아리에 부착된 5개의 모션 센서를 착용하고 가로 4m, 세로 4m의 가상 경기장에서 대결한다.

경기 시간은 60초이고 3판2선승제로 치러지며 상대의 체력 게이지를 모두 소진하거나 남은 체력 게이지가 더 많은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품새대회를 주최하는 한라일보 김한옥 사장은 "제주자치도태권도협회와 함께 침체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태권도인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광복 81주년 '독립운동'의 기억을 담다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독립운동의 기억이 저마다의 마음 상자에 놓인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이런 바람을 담아 광복 81주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획 전시를 잇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지난달 15일부터 기획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열고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함께 여는 전시로, 기념관 상설 전시를 4개 이동형 기억상자에 담아 제주로 옮겨왔다. 이달 14일부터 이 기획전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생 3~6학년을 위한 '기억을 담는 상자'다. 전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태극기에 담긴 의미도 알아볼 수 있다. 나만의 국기함 만들기도 이어진다.

상시 체험 프로그램인 '한국, 그대들 돌아오시니: 독립운동가에게 전하는 마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의 시간을 1945년으로 되돌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당시 환영 인파 안에 서게 한다. 독립운동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과 그림에 담아 전시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프로그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김지은기자

계속되는 폭염에 수난사고 구조신고 급증... 4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드디어 시작된 서귀포 바다, 안전한 이용으로 즐거움을 두배로

서귀포 해수욕장 개장

중문색달
색달동 2822-12 지선 일대

표선
표선면 표선리 44~4 일근

화순금모래
안덕면 화순리 833-2 일근

신양섬지
성산읍 고성리 186-2 일대

개장기간 6. 24. ~ 9. 6.
개장시간 10:00 ~ 19:00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이용 시,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 ✓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 설치 X
- ✓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버리기 X
- ✓ 지정된 장소 외, 취사나 야영 X
- ✓ 수상안전선 밖에서 해수욕 X
- ✓ 지정된 시간 외, 해수욕 X
- ✓ 해수욕장 백사장·유영구역 내 흡연 X
- ✓ 해수욕장 내 토석·자갈·모래 채취 X
- ✓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 조종 X
(단,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물 놀이 X